

제 297 회

제 2 차

서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2 년 1 월 18 일 (화)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2차 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 의 안 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군수제출) 2

○의장 나학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나학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되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오늘부터 3일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우리 2022년에 군정운영 방향이라든지 군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이 자료에는 있지만 잠깐이라도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한 과의 부서장님이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9쪽에 보면 군정지표에서 자전거도로가 해마다 그냥 일정부분으로만 되어 있어요, 증가가 되지 않고. 그런데 최근 타 지자체

에서 보면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정비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늘려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면 20쪽에 금강하구 블루뉴딜조성에 관해서 최종 달성목표가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이번 대선 관련해서 대선공약에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찾아보니까 우리도 이걸 요구는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대선과제에 타 시군보다 우리군은 개수도 너무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대선이 있는 걸 알았었으니까 미리 좀 많은 준비를 해서 최대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블루뉴딜 같은 경우 군산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여태까지 계속 숙원사업처럼 같이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고 있었잖아요. 도에서도 그렇고 전라북도에서도 간에도 상생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군산하고 의견조정이 안 돼서 계속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쪽 캠프에 전달 좀 하고 이랬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반영되도록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천형 뉴딜2.0 추진을 하고 있는데 뉴딜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현 정부의 주요과제기는 하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화두기 때문에 제목만 바뀔 뿐이지 이 정책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저도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군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금 늦어서. 그렇죠?

조금 늦어서 이 부분들이 제작년부터 뉴딜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했던 것들인데 우리는 아직도 반영된 것들이 없어서 이런 걸 실장님 바뀌셨으니까 좀 더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설명은 안 하셨지만 26쪽에 금강변 멀티플렉스 아트폴 거리조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었어요. 아트폴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평화공원에 조명 야간경관 조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지금 일부.

○김아진 의원

가보셨나요, 밤에?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일부 지나가면서. 직접 공원을 가본 건 아니고요.

○김아진 의원

그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간경관을 조성하려면 좀 조도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서 눈에 띄도록 하든지 아니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몇 번 지나가다 보면 너무 흐릿하게 되어 있어서 아쉽습니다.

도선장 가는길 거기 육교에도 보면 조명이 너무 조도가 낮아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설치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교통 운전과 관계가 되니까요. 시인성과 안전성을 2개를 담보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1월달에 용역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설치를 안 해야 맞죠. 설치를 할 거면 효과가 있도록 설치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아진 의원

위치를 바꿔서라도 설치를 할 때 효과가 있어야 예산투입 한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0쪽에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참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잘 짜야 된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인접 지자체하고 생활권 협력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게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령하고 같이 이 생활연계 사업을 한 적이 있죠? 기획실에서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아진 의원

그게 제대로 협력이 안 되고 그냥 결국에는 따로 따로 하고 마지막 결과도 좋지 않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어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지난번처럼 아직은 단계가 협력하기 어려운 단계다 싶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물론입니다.

○김아진 의원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33쪽에 지역연계형 넥스트로컬사업은 지금 사실 한산에 삶기술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서천군 청년네트워크에서 연계해서 서천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전적으로 서천으로 갈 청년을 서울시가 신청을 받아서 서천으로 보내 줘야 됩니다.

○김아진 의원
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그러니까 서천으로 오는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아진 의원
그 중간지원조직이 청년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아진 의원
청년네트워크의 그 청년들도 사실은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전적으로 생업을 하기는 하지만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한 96명의 위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군의 역할이겠죠.

○김아진 의원
시도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는 합니다,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물론입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청년네트워크 내에 있는 청년들하고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서천에 머물 수 있으니까요. 귀농귀촌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창업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죠.

○김아진 의원
주변인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

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관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도 있고 예산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주민들이 정책에 관심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할 것이 있고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도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런 구분들을 사실은 주민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예산팀이나 이런 데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할 거는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만 받아서 실행은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찾아가는 예산간담회를 하셨는데 이 예산간담회를 안 한 지역이 6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렵더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이걸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신청을 해서 찾아가는 예산간담회 신청 받은 데는 뭐 세 번 한 데도 있고 한두 번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아예 안 한 곳들은 참여예산제에 올라온 거 보면 조절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의무화해서 각 읍면에서 꼭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실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요.

브라운필드사업 관련해서 기재부 사업내용 보완권유에 따라서 예타사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조동준 의원

이건 우리군의 자발적 결정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이게 도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성에 대한 구체성,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광부분이 포함이 돼서, 관광사업은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들이는 부분에 대한 이게 맞지 않다. 그다음에 탐방로 이런 것들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준 의원

저는 예타사업 철회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후에 추진계획에서 예타 통과를 목표로 이런 저런 일정들을 다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까 보고하신 중에 사실 브라운필드사업의 어떤 발단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로 놓고 보면 이게 사실 우리 지역적 문제 서천의 문제는 아닌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당연하죠.

○조동준 의원

우리 국가개발시대에 어떤 피해를 입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저걸 정화를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정화 이후에 저것을 어떻게 복원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 건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서천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9년도에 균형발전정책으로 한 24조 정도 되는 전국의 예타 면제 사업들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걸 계속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전국에 한 13건 정도의 한 2조 원 가량의 사업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됐어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선에 공약으로도 각 당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조동준 의원

그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뭐 그걸 목표로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서도 오히려 그 국민여론 조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만들면 저는 저 사업 충분히 예타 면제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략적으로 같이 병행하고 오히려 그쪽에 비중을 뒀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꼭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개요에 수립규모 500억 규모로 5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파악된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일단은 89개 지자체에 연간 100억 원씩 주는 걸로 일단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단기적으로 5년 정도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동준 의원

제가 최근에 다른 자료 좀 파악하면서 접수

된 것이 지금 행자부 입장은 150억 정도로 10년을 주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단절적인 사업인지 연속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김아진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순전히 지역의 재량에 충분히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사실 제가 500억 5년 이렇게 해놓은 것에서 봤을 때 이것도 좀 내부의 흐름이나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우리군에게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취합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최근의 얘기가 아무튼 150억에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게 최대한 저희가 사전에 계획들을 세우고 세팅해야 우선 선정되거나 인센티브를 받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정보라인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흐름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해서 중앙의 흐름들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네,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저도 그냥 김아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내용은 말고 주민참여라고 하는 관점을 사실 우리군이 먼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주민을 통해서 제안된 것이 주민참여로 볼 건가에 대한 문제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안이 주민들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으로만 그냥 주민참여를 면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두 부서가 아니고.

실제 저는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했던 것이 주민들이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사업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돈 줘서 다른 데가 사업자가 시행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거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직

접 주민들이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김아진 의원님 말씀과 추가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마지막에 44페이지 “적법행정구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는 작년에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법과 적극에서 지금 다소 혼선이 있고 오히려 여전히 우리는 적법한 것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보다 너무 앞선 적법행정을 강조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가능한 것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그것을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는 행정을 하지 못한다.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 행정이 알고 있는 파악된 한 가지의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안 된다고 단정 짓고 못하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행정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적극행정 이전에 적법행정이 우선이 돼야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소송 진행 중인 게 한 100여 건 되거든요. 그거는 민원인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한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조동준 의원

정부가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는 걸 법을 벗어나서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행정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법의 수준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적법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외에 추가적인 다른 법에 대한

학습이나 검토들이 돼야 가능한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법을 어겨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아니,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법을 잘 숙지해야 적극행정도 그걸 토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조동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많으니까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법령들 충분히 해석하고 단속해서 이루어지는 조치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네,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청사 부지주변 공동화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군이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천읍 농촌중심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마치 성안마을 정비하면 뭐가 해소되는냐 오해가 있어요. 주민들 간에도.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군청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상권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이용할 건가, 활용할 건

가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지 않으면 공동화방지대책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그래서 군청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이미 실행단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성안마을 정비사업만 하더라도 2021년도 하반기에는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그 효과를 만들어 내야 돼요. 군청 이사 가고 더 허허벌판 됐을 때 그때 무엇부터 시작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네.

○김경제 의원

그래서 무조건 빨리 빨리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보면 성안마을 개선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1년 반이 넘었어요. 지금 된 게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설득 이견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과정이 늦어지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그걸로 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지금 마산, 시초 등등 해서 보면 유희공간 활성화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일정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면이나 마을에 두세 사람의 입김

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게 완성단계에 가도 주민이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도에 대해서 좀 시작 전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실장님 새로 오셨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 행정감사나 군정질의 때 즐기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귀농귀촌, 외부에서 오는 청년들 너무 그분들에 대한 정책에 좌우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진짜 너무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들어오는 청년과 나가는 청년 어떤 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나가는 청년이 많죠.

○김경제 의원

지금 들어오는 분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야죠. 나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못나가게 할 것인가.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자,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청년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지금까지 사시는 청년들은 허탈감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지역에 사는 청년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원하지만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의를 받는 거고요.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고민 더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나 군정질의 때 수없이 말씀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역연계형 넥스트로컬사업추진 서울시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33쪽.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지금 우리 장선초 쌀문화센터 주변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지금 운영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서천을 바라보는 것을 어떤 쪽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그 단위사업을 가지고 서울시가 서천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김경제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가 서천군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부서와 그런 협의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서울시가 우리한테 불만을 갖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경제 의원

기 와서 사업하는데 상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다만 저희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구상하고 있고 지금 넥스트로컬도 그런 차원이구요.

○김경제 의원

서울시에서는 서천군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기가 앞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자꾸. 이런 저런 간단한 거 요구를 해도 들어주는 게 없고.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 하고 있는 사업마저도 서울시와 협업이 안 되는데 뭘 사업을 또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파악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걸 좀……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순간 며칠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서울시에 모 의원이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서천군에 저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그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서로 신뢰가 쌓여야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면 이 공모사업도 이제는 실과가 주도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군이 좀 전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뒤에서 나오는 얘기가 “안 됐으면 좋았는데 됐다” 이게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요.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냥 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지적하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 됐더라”

우리 기획실에서 이번에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묶어서 우리군 전체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천군 전체에서 숙의가 돼서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우리 실정에 불합리하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히 신청을 안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무조건 신청해 놓고 되니까 “이거 무조건 반납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실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단일사업도 아니고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돼서 올라왔어요. 면에서 오시라고 해서 질문을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서로 논의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이 예산이 필요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읍면장이 대답을 못해요.

“저 대답 잘못하면 지역에 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하지만 참여예산 읍면을 막론하고 전체가 다 그런 답변을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도 좀 우리가 선정위원회 실질적으로 실무진이 좀 배치가 돼서…… 어떤 사업은 실과에 여쭙봤더니 실과조차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른 부서에 계시면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조금 변형을 줘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 하던 사업은 빼버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되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그걸 미리미리 챙겨서 다듬어 가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첫째,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부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사업부서.

그래서 사업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하겠지만 일부는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44쪽에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혁신추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제가 이와 유사해서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서천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가맹점들을 해서 지금 발행해서 할인을 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뭐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김경제 의원

그런데 최근 서천사랑상품권이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시는 건 잘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일부 아파트 관리비로 서천사랑상품권이 쓰인다는 것을 파악 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군이 아파트 관리비를 가맹점으로 4군데를 해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이게 서천사랑상품권하고 실장님 소견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사실 뭐 그게 상품권 발행취지하고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다만 우리군민이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할인을 받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로페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법은 아니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하지만 그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김경제 의원

저는 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천사랑상품권을 시행하게 된 목적과 맞느냐고 여쭙보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100%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경제 의원

앞으로 이거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이거를 가맹점계약이 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거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건 그만 해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김경제 의원

그러면 신청해서 받아준 건 뭐고 다음부터는 안 받아주면 무슨 근거로 안 받아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김경제 의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목적에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혀 집행부 내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부서장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고.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 서천사랑상품권을 할인해 주고 하는 목적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고 외지에서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군 내에서 사용해서 상권을 보호하자는 목적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제를 누가 어떤 분이 했는지 결제한 것을 갖고 오라니까 뭐 못

찾는대요, 못 찾는대. 솔직하지 못한 것이 더 나쁜 거예요. 부서에서도 그때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찮다 생각하시지 말고…… 메시지로 항의가 왔어요, 항의가.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이번 업무보고 때 발언을 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주민들이 의견이 왔어요. 한 여섯 분한테.

무슨 일을 시행할 때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줄은 알겠지만 좀 신중을 기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토의를 거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가 실질적으로 미비점이 있다면 조례를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개정해서라도 우리 본뜻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책무고. 의회도 잘했다고는 못해요. 의회도 그거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니까. 이거 반드시 개선시켜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게 할인 안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도 큰 줄기에서는 실장님이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어쨌든 부여받고 그만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네.

○김경제 의원

다음에 실과에서도 자세한 말씀 드리겠지만 이제 와서 “조례개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런데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왜 받아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해요. 하고 싶은 일만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수 사회복지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사회복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48쪽에 현황 분석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의 대부분 사업은 국도비에서 지정된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자율적인 것들은 군비로 해서 발굴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표를 보시자고 말씀드린 것은 노인인구는 3번에 보면 38% 그다음에 장애인 인구는 3번에 보면 안 나와 있지만 한 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보면 이 3개 아동, 영유아, 청소년 세 부분을 합치면 한 20% 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반영되는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 783억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은 152억 정도, 아동·청소년·영유아를 세 부분 다 합치면 2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청소년은 이 영유아·아동·청소년 그 예산 중에 보면 영유아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또 아동하고 영유아 두 군데가 제일 많은 이유가 보육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아동 청소년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그 사업을 늘려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늘어나야지만 인구소멸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인구유출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이 주요사업에도 보면 청소년 예산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저소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을 사업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청소년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관찰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전반적인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다시 재지정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재지정 받으려면 지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놓치지 말고 잘 맞춰서 다음번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예,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네,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뒷부분사업들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저도 우리 김아진 의원님 지적에 전반적으로 동의해서 그 부분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인데 아무튼 저희가 인구정책 여러 가지 청년정책하고 있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지 않나, 구호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전반의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군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수상도 하고 평가를 많이 받아서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눈을 돌려서 사회복지대상에 대한 사업들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들도 중요한데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조건을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 조례를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요원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예산이 얼마큼 반영됐는지 제가 확인도 안 했어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군수님이 어쩔거나 일자리 때문에 기업도 유치하겠다고 하시고 일자리 몇 개를 만들어줬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우리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일자리들의 처우와 조건을 높여주는 문제를 경각심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좋은 일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여전히 그냥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정년과 관련해서 근무한 경력들

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체계에서 그냥 멈춰있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걸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저희가 더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하겠지만 저희가 지역에 이런 사회복지에 전반적인 어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가급적이면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른 일반 기업체나 일자리에서는 근무하면 근무하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현장은 그런 것이 많은 현장에서…… 규모가 있는 데들은 일부 기관들은 있긴 한데 그런데도 거기도 역시나 일반적인 다른 일자리들과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어서, 보조금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임금이 동결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준수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여주는 문제에 관심 갖고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각박하고 어려우면 사실 그분들이 돌봐야 되는 아이들에게 뭐 의무감으로 친절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족감들을 높여주는데 진작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여기서 생산 되는 생산품들 있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론 언뜻 들어 봤더니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구매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구매제도가 있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장애인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만든 생산품들을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을 위배해서 구매하는 게 아닌 거니까 법

이 있어서 구매하자고 하는데 사실 다른 우선구매제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형식적으로 그냥 그 목표치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기준에 딱 딱에 차서 그냥 별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해서 맞추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의 현장들이 있으니까 사업장이 있으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보면 우리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해서 지금 보면 56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파악 못하셨어요?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42개 사업단.

○김경제 의원

시니어 포함해서.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시니어 포함해서 42개 사업단.

○김경제 의원

시니어 포함해서, 그러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42개 사업단 3,125명……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예.

○김경제 의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14개 사업단 1,391명.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이게 42개 사업단에 포함된 겁니다.

○김경제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보면. 곡해가 있는 것 같고.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큰 어떤 일자리에 대한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인일자리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 서천에 맞도록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모여서 매일 아침에 휴지를 줍고 해요. 정리도 하고. 그건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매일 가서 하실 게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을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게 해 드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제는 좀 공공성이 확보되고 우리 군에서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유도리는 나는 있을 걸로 봐요. 그와 관련해서 토론을 거쳐서 어른들 말씀도 존중하고 해서 사업에 대한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천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예.

○김경제 의원

지난번 실장님한테도 말씀 드려서 대답은 하시는데 보면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못하면 왜 못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럼 최소한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보겠다든지 이런 의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와 비슷한데 우리군에서 보면 장애인사무실을 임대 많이 해줬죠?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임대한 이후에 혹시 관리를 하세요?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에……

○김경제 의원

특히 시각장애인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진출입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보면 ‘서천군이 너무 무심하다. 사회복지실이 뭐하는 곳이지?’ 이런 의심을 갖게 해요.

한번 돌아보셔서,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진출입 하시다가 사무실로 진출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계단을 타고 올라다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선은 안 돼도 보완은 가능하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현장을 다니면서 보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금방 거기 가려나 몰라요. 그렇잖아요? 좀 배려차원에서 이후에 한번 조사를 해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지금 어린이 유치원·유아원 일부 리모델링하는 곳이 있죠?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그거까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김경제 의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시기를 조정해서 잘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담당 팀장님한테도 전화는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도 못했는데 학부모들이 졸업식이라도 유치원·유아원에서 하고 싶은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부실공사 논란도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동파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는 부분도 아닐 경우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이 너무 따라오지를 못한다. 그때그때 제때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히려 사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연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절기라 아마 공사 중단해서 연장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좀 동파와 관련 없는 이런 사업들은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평생 이 시기에 졸업사진 하나가 평생 남는 건데 그거 하나 찍을 데가 없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셔서 100%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그런 의견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수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96쪽에 맞춤형 빅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강화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업위치가 충남도청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도에서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아진 의원

우리도 이제 데이터전산팀이 신규로 설치됐

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도 그러면 어쨌든 데이터를 보내고 공유하기는 하지만 우리 서천군만이 필요한 데이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나요? 우리군 자체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김아진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사실은 이게 충남도에서 올담이라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해놓은 상황에서 통신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그런 여러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구입해 와서 각 시군에 맞게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구축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쉽게 말해서 버스정류장 하나를 설치할 하더라도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사람 유동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모이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빅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관광 쪽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지역기반 만드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분석하는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데이터가 양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이동이 되고 어디서 활용이 되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 내용이라면 어디에서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아마 그런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김아진 의원

그다음에 99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개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연관된 내용들이 변경이라든지 타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라든지 이런 지침들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100쪽에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 출향군민에 대해서 자매도시하고 출향군민에 대해서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향세 도입된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김아진 의원

올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이 이 자매도시하고 출향군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장님께서도 그 데이터를 갖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향군민에 대한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기념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발굴하는 것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뭐 1~2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10년 이후에는 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결과가 나와있으니까요. 우리군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저도 고향기부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김아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 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2023년 1월부터 시행인데 저는 아쉬움이 우리군이 참 늦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먼저 선점해서 챙겨야 돼요. 고향기부세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자치과 업무에 혹시 검토된 적 있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고향세……

○조동준 의원

아니, 지금 자치과 업무에 올해 업무 중에 연찬하실 때 이 고향기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혹시 검토한 적 있으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팀장들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한 바는……

○조동준 의원

협의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한 바는 있습니다만……

○조동준 의원

그런데 저는 이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검토됐는데도 보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 고향기부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관점이 부족한 거라고 봐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다른 지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 관련부서가 벌써 TF구성해서 행정력 집중하자고 하고 있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매스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저희가 이게 사실 재무과 쪽에 세수를 확보하는 관점으로도 되고 있는데 아까 김아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출향인들을 관리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고향기 부세지만 이번에 입법되면서 굳이 내가 고향이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고 하는 도시 외의 지역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법으로 광고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그분들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아무튼 다시 우리 재무과 부서나 다른 관련…… 이게 답례품을 지역농산품으로 주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타당이 되는 대상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내에서 우리군에 끌어올 수 있는가가 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워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해서 중복됐지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보고 이후에라도 자치과가 좀 더 중심이 돼서라도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알겠습니다. 조직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조동준 의원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후에 식사를 한 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나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자치행정과장 정진형입니다.

○의장 나학균

오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오후에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형 과장님이 과거에 옛날에는 총무과였었죠.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그렇습니다.

○의장 나학균

거기서 조직인사팀장? 옛날 그 명칭이……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행정계장이었습니다.

○의장 나학균

행정계장?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의장 나학균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계장 주무계장 하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과 4급 승진해서 인사주무과장으로 온 그 소회를 한말씀 들어 보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소회랄 건 없고요. 어쨌든 올해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으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본격적인 시행이 되는 해이고 민선7기를 마감하고 민선8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그런 우리 조직이 능동적이고 능력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장 나학균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었는데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군의회가 집행부,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이번 연말 인사에서 당연히 법에 명시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불

법으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무시당한 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내가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진형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의장 나학균

첫 번째,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초에 지역신문에서 “서천군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이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안과는 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우리 서천군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얘기를 않고 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10월 12일날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때도 자세하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월 20일날 서천읍장을 4급으로 하는 그런 조직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0월 20일날. 그리고 21일날 우리가 임시회 때 군정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노성철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복지실을 2개의 과로 분과하고 장항읍장과 서천읍장을 현행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안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가 오후에 답변에서 이 4급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서천읍장을 4급으로 해서 입법예고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전혀 없었어요. 여기 보

면은 답변이 “복지업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읍면행정이 과거 농사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행정 여건과 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실 분과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노성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천읍장과 장항읍장을 서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기관 자리가 하나가 필요하니까 사회복지실을 분과를 해서 5급으로 하고 장항과 서천을 서기관으로 하자고 했는데 서기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날 서천읍을 4급으로 하자는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를 않았습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군의원에게 “우리는 이미 어제 이렇게 내용을 확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다”든지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어제 서천읍장을 4급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서 입법예고 했다는지 군수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얘기는 없이 이렇게 엉뚱한 뭐 “수요가 농사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변했다”든지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게?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 28일이 지난 11월 17일 다시 조직개편안을 수정을 했어요. 4급 서천읍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그 조직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 4급이 최초에 우리가 원래 두 자리였다가 세 자리로 늘어난 것이 2018년 2월입니다. 그러면 10월달이면 벌써 3년 8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가, 4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줄속으로 해서 10월 20일날 서천읍장을 했다가 28일이 지난 11월 17일날 또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지 이것을 연말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회의에서 보류를 했다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한다” 자꾸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

서 우리가 본회의 마지막 날 12월 20일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정질문에서도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조직개편 이런 중요한 것을 줄속으로 며칠 만에 바꾸고 또 그것을 3년 8개월 동안 그대로 놔뒀다가…… 아니, 그때 했으면 서기관이 하나 일찍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연말에 가서 이렇게 줄속으로 했다는 것은 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군정질문과 시책구상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날 자치행정과 시책구상보고회 때 제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시책구상보고서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가” 물었는데 소위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못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그냥 옮겨놨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위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무능한 사람이 소위 700~800명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10월 27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약간 언성이 높았었죠. 그랬더니 27일 공무원들이 올리는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서 의회를 조롱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의원들을 뭐 “지랄하네”, “당신들은 4년 동안 무슨 역할을 했나”, “기초의원 없애는 게 맞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입에 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밀보장 뒤에 숨어서 무슨 시정잡배나 하는 이런 글을 올리는, 정당하게 의회가 잘못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올리면 우리가 그걸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이런 짓을 했습니다. 비열하고 아주 야비한 그런 글을 올리고.

특히 그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 실과장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공직을 그만둘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24년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아마 팀장님들도 오래 안 된 분은 모를 거예요. 그 24년 전

을 끄집어내서 그만둘 때 그걸 댓글 달아서 저에 대해서 아주 망신을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3선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이십수 년 전에 했던 일과 지금 의정활동이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런 글을 올려서 망신을 주는 건지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12월 28일날 문제가 된 것 같으니까 글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직원들과 의회도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당하게 잘못된 것을 올려야지 왜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것을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임시회가 11월 1일날 끝났는데 도저히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조직개편 할 때 의회를 무시했고 전혀 설명도 않고 또 시책구상보고 할 때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실에서 뜻을 모아서 의장인 저와 강신두 부의장이 군수실에 가서 인사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인사 때 보면 팀장은 승진해서 면장으로 가고 과장은 장항읍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인사조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 24일 우리 하반기 인사를 했습니다. 의회인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회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천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말하자면 그런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이건 불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런 인사를 했어요. 이런 것도 이게 얼마나 의회나 의장을 무시하고 이런 절차를 안 밟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의회사무과장 김은이 과장보고 “자, 이것은 안 된다. 다시 추천을

의뢰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추천을 해줘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인사를 의회부분만 과거 것을 취소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24일날 하고 25, 26 연휴 지나서 월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더니 28일날 추천의뢰가 와서 그날 우리가 추천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보니까 전혀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법절차를 밟지 않고 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저는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해순(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학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실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정진형 과장님도 장항읍장 했기 때문에 이걸 소상히는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까지 의회 인사하면서 의장과 협의나 이런 추천 받지 않고 한 사례가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어떻게 이성구 과장 6월말 공로연수 간 후로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게 인사부서만 가면 어떻게 성격이 변하는지 상당히 오만해지고 권위주의적으로 변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인사부서에 가면 타 부서 직원들보다도 월등히 빨리 승진을 한다 이런 것이 우리 청내에 직원들의 여론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여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형 과장님이 거기 가서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자세라든지 또 인사부서가 지원부서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큰 성과를 내는 부서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만 가면 점수를 근평을 많이 줘서 그러는지 빨리 승진한다는 것이 그게 일반 직원들의 생각이예요, 불만이고.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학균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희량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강신두 의원

리조트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할 시간이니깐 금년 2022년도 말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동백정 300실 리조트하고 종천 리조트하고 어떤 게 빨리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천군에 리조트 2개 있어야 맞아요?

하나도 없어서 찢찢 매는데 언제까지 리조트 끌고 갈 거예요, 몇 년 동안을?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지금 SPC검증 중에 있고요……

○강신두 의원

SPC는 핑계예요. SPC는 핑계라는 것은 내 입맛에 맞아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 절대 SPC 핑계대지 마요.

왜 그러냐? 동백정에 리조트를 지으면 종천 골프장에 리조트 짓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그런 건 아닙니다.

○강신두 의원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업자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업무보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천 골프장에 리조트를 짓는다면 발전소는 빨리 우리군에서 리조트는 맞지 않으니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야지 금년도 업무보고에 또 리조트를 또 올려요?

그러면 골프장에 리조트가 안 된다면 다시 또 동백정에 리조트를 거론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형식상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이거는 공약사항이라 보고를 안 할 수 없고요.

○강신두 의원

지금 공약이 금년 8월 30일이면 완공이 끝납니다, 철거가. 그 부지에 짓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뭘 SPC 핑계 댈니까? 우리군에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걸 양쪽에 다리 놓고 하면 안 된다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저도 궁금해서 여쭙보려고 그랬었는데 이분기별 추진계획을 보면 복원공사가 4분기에 선정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신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취중부발전에서 이걸 계속 고려하고 검증중이기는 하지만—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단계 단계 별로 확인을 재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이러니까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재촉을 않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김아진 의원

네,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계속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아진 의원

그다음에 113쪽에 물벼들 생태체험 학습랜드 공정률이 60% 정도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아진 의원

4월 완공하면 바로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준비들은 다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주민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역량강화사업들이 계속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잘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집합교육은 사실 못했고요. 같이 알음알음 진행은 됐습니다.

○김아진 의원

의원님들도 다들 걱정을 하시겠지만 완공해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운영이 문제고 걱정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역량강화도 계속 시켜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저희들도 운영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새로운 사업들도 이렇게 발굴을 해 주시고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아진 의원

그리고 종천농공단지 생활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그전에 근로자기숙사 건립을 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아진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다 입주가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거기는 다 만실이 됐어요. 잘되는 편입니다.

○김아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리조트와 관련해서 강신두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지금 SPC후보자와 관련해서 심의중에 있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경제 의원

그걸 앞당겨서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관계자들이 답변을 했고 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저희가 지난해에 조건부승인하고 PF 2,000억을 가져온다는 기관들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대명 소노하고 DB증권하고 현대건설하고 해서 SPC 전에 2,000억을 통장에 예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 듣고 본사에 가서 그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지금 본사 법무팀에서는 조건부승인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건 없이 PF를 해오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DB동부증권에서는 이미 조건이 걸

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면 2천억을 예치 하겠다 했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 서천군보다 제가 서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경제 의원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민간인을 통해서 서류를 입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기본자료도 없어요.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일부분만 보여드린 적 있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동백정 복원에 굉장히 우리군이 역점을 가지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경제 의원

동백정 복원되고 리조트 없이 동백정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이거는 기본 협약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리조트를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제 의원

이게 지금 서천화력에서는 빨리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꾸 지연을 시키려고 그러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저희는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김경제 의원

우리하고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럼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보니까 4분기에 동백정 복원공사 중 리조트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4분기에. 이게 맞아요?

차라리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요, 차라리. 서천군이 능력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말기라니까요.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거?

아니, 업무보고 맨날 하면 뭐합니까?

이거 했다가 오늘 못하면 “내년 하반기쯤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또 올릴 텐데. 이 업무보고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할 때는 뭐냐면 군민과의 약속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아니, 뭐 저희들도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하여튼 빨리 하려고 진행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조건부 검토한다고 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현장방문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상반기에 갔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김경제 의원

그거 검토하는데 그렇게 시간 걸려요?

14일 전후해서 뭔가 매듭을 지을 거라고 많은 얘기들을 풍겼어요. 그런데 14일 전후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이게 조건부라는 게 무조건적인 조건부가 아니고……

○김경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면 탈락을 빨리 시켜야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닙니까? 1년, 2년 동안 그걸 끌고 가니까 문제인 거지.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이 부분은 하여튼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기업유치 중요해요. 그 업무 과중하고 노력하시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선순위가 있어요. 해결할 일이 있어요, 해결할 일.

능력 없으면 주민들한테 숙제 주세요, 그냥. “주민들이 해결해 주십시오”하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좀 책임감 가지고 의지 가지고 합시다요. 오늘 이거 업무보고 끝나거든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 때 어떻게 보고했나 그 내용을 한번 보셔야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지금. 동백정 복원해서 뭐할 겁니까? 생태원 유치해서 우리가 지금 득보는데 뭐 있습니까? 다 스쳐가는 관광이지. 뭐 때문에 그래요?

자원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다음 간담회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가 골프장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서천군민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군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업 때문에 이게 묻혀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물버들 생태체험 학습랜드와 관련해서 4월달에 완료할 예정이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의원

생태탐방교도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야간조명사업을 할 예정이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의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생태교를 설치할 때 안전이 보장되는 생태교를 분명히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예.

○김경제 의원

예전부터 다 했고 설치 이후에 조명사업을 할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죠? 물랐어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조명사업은 당초에 계획은 없었고요.

○김경제 의원

조명사업이 계획이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조명사업은 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생태교만 났어요, 생태교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4월에 준공인데 운영계획은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경제 의원

운영계획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 잘 되어 가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아직 확답은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의지는 저희한테 표현은 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농어촌공사에서는 해 주기로 확답을 했어요. 빨리 진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경제 의원

그리고 아까 김아진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를 했고 지금 식당하고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참 고민이 많아요. 소규모 우리 자영업자들이 여러 회사에 납품을 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생활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공동식당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은 납품가 업체가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대기업 아니면 농협 이런 데서밖에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하셔야 돼요. 그냥 소규모 자영업자는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계속 원하면 대형식당 지어줘서 그냥 운영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더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현재 납품하는 우리 소규모 자영업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가 고민이 필요해요. 무슨 준공식한다고 가서 박수 빵빵 치고 그걸로 끝나면 죽는 게 누가 죽습니까?

기숙사 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어쨌든 개인주택이나 서천읍내에서 기거를 했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김경제 의원

그게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소비가 안 돼요. 이런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할 수 밖에 없었으면 지금까지 납품했던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분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군이 해야 돼요, 그 역할을.

경쟁이 되겠어요? 마치 농공단지에 근로자 숙소 짓고 식당 짓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설명하세요. 그 주변 분들은 고사해요, 고사.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물론 그분들도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위생적으로 음식 먹고 싶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군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꿔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여기도 지어 달라 저기도 지어 달라 다 지어 주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우리대로 쉽게 얘기 해서 관리비 들어가서 수리비 들어가서 자영업자들은 고사하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종천농공단지 주변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원사업을 좀 발굴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기

존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물론 투자유치과에 여러 가지 고민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면서 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좀.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알겠습니다.

○ 김경제 의원

우리 전체적으로 서천군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주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빨리 이사 가든가 내가 하는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 속에 이런 저런 시설들을 넣어놓고 운영을 하면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타지분들이 와서 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소규모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드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돈도 안 벌고 그냥 심심풀이로 용돈 쓰려고 하는 사업조차도 막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거 고민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리조트도 결과물을 빨리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분기 가면 또 끝 아납니까? 1분기 안에 어떤 답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하여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노성철 의원

(거 수)

○ 의장 나학균

노성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성철 의원

노성철 의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금 1단계가 준공이 됐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준공이요?

○ 노성철 의원

예.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1단계는 준공이 됐습니다.

○ 노성철 의원

그러면 지금 다 서천군에 이관이 됐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일부 폐수처리장은 1월 1일부터 이관이 됐고요. 나머지는 준비……

○ 노성철 의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 노성철 의원

2단계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투자협약이라든지 선분양이 된 사례가……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현재 2단계에 19필지. 한 8만 평 정도는 선분양공고가 됐고요. 그중에 지금 물류단지하고 몇 개의 기업들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노성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단지 안에 있는 신호등 관리는 어디서 해요?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신호등은 아직 저희한테 이관하지 않았습다.

○ 노성철 의원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신호등을 다 점멸등을 했었어요. 옥산사거리하고 옥남사거리 빼고는.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 노성철 의원

선진뷰티사이언스에서부터 서천으로 넘어오는 데가 신호등이 그 짧은 구간에 한 500m도 안 되는 구간에 4개인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 노성철 의원

그 신호등 자체가 연동이 안 돼요. 하나 가서 쉬고 다음에 또 신호 받고 가면 그 500m 구간을 너무 힘들게 넘어가신다고 얘기해요. 좀 확인을 해서 LH가 관리를 하든지 하면 연동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술자들하고 봤어요. 봤는데 서천에서 장항 쪽으로 오는 거는 신호등이 일괄 파란등으로 바뀌는데 장항에서 서천으로 가는

것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동시에 양방향으로 신호 맞추기는 시스템 상 어렵다는 기술자들의 자문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더 하셔서, 이게 불편사항이 엄청 민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이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건지 신호등도, 아니면 경찰이든지 LH에서 관장을 한다면 한번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알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짧게 할게요. 우리 장항산단 83%고 전체는 대비 34%라는 얘기는 2단계 했을 때 34%라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의원

그리고 83%가 투자협약을 포함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분양. 판매가 된 거를.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MOU 떠나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의원

34%요. 저는 아무튼 다행인데 2단계 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무튼 저희 입지 조건이 그리고 가격이 여러 가지 맞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저희가 이런 저런 지원 조건들을 높였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뒤에 연계해서 117페이지에 우량기업을 유

치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1단계 분양된 업체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뒤에 있는 우량기업과 앞에 100% 분양에 목표를 맞춰서 가는 것과 사실 저는 상치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생태원이나 자원관이라고 하는 특수성들 특히나 지금은 아직은 생태원보다는 자원관이 더 영향력이 있어서 해양바이오 관련된 기관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막 100% 분양에 맞춰서 몰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측하면 실제 이런 해양바이오생태분야에 새로운 연구기관 공공기관들이 필요하고 또 요구되고 있잖아요. 이걸 예측해서 좋은 용지들을, 물론 우량기업도 해당하지만 좋은 공공기관들을 위한 부지로 아껴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의원

이 정도까지 노력해서 투자유치해서 일단 채우는데 노력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는 조금 방향을 전략적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폴리텍대학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개문발차 하겠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이제 시작입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6년 완공 및 개교를 목표로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교육부인가를 받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사실이 목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실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된 거니까 가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아까 산업

단지과 연결된 것도 마찬가지로인데 우리가 밀고 가려고 하는 해양생태바이오 이 분야는 클러스터를 하든 될 하든 사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산학연이 돼야 된다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의원

그러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폴리텍 가지고 그 학문 쪽을 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생태원하고 자원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대학원대학을 그동안 몇 번 얘기했는데도 우리군이 사실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안타까운 건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원대학은 지금 대학정원문제와 관련해서 폴리텍도 가장 그 문제인데 학령인구가 적어서 입학인구가 아이들 적으니까 더 이상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입장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학원대학은 특수대학원대학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학령인구하고.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군이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 해서 그냥 이거 폴리텍 하나만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저는 생태원이 들어와서 우리군에 무슨 도움이 되냐, 자원관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는 생태원과 자원관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인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태산단과 자원관과 생태원을 연계해서 앞으로 10년 100년에 대한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면 이거 그냥 막 기업 100% 분양하는데 목표 맞춰서 갈 일이 아니다.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단계가 산업용지가 20만 평이에요. 20만 평이고 현재 15만 평은 분양이 됐고 5만 평은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전용산단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5만 평은 해양바이오 관련된 기업만 유치하려고 지금

아껴놓은 땅이고요.

2단계 부지에 항공보안장비에 보안클러스터 해서 8만 평을 남겨놨고 최근에 생태원하고 생태산업클러스터해서 옛날에 했던 생체모방 융합연구원도 최근 물살을 타서 그쪽도 한 3만 평 정도에 클러스터 지정해서 전에 처음에 대안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비전들을 지금 가려고 하고 부분입니다.

○조동준 의원

그렇게 고민해 주셔서 다행이고. 저는 오히려 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분야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때로는 없는 기관도 만들어서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에 요구해서 아니면 그쪽 기관들하고 또 얘기해서 이렇게 계속 유치해 나가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들어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에 그런 연구인력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적어서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량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장항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예.

○김경제 의원

지금 보면 24년까지 4년간 계획이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19년, 20년도에 제가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1년이 늦어지면 약 20%~30%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요. 그거 알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20년도에 저희가 도비사업이 없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지원하는 과정에 예산문제점 때문에 좀 지연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이게 문제가 늘어지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도 잘못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예.

○김경제 의원

이 사업은 이렇게 4년간 잡아왔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사업해서 20%, 30% 매년 늘어난다고 판단을 해보셔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보면 사업이 완료될 때는 실질적인 예산의 배 이상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도 수치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예.

○김경제 의원

결국에는 앞당기면 뭐냐면 이게 우리군 예

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예.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경숙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보려고 그래요. 161쪽에 주택 폐가 일제조사해서 폐가 처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무과장 홍경숙

예.

○김아진 의원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가요?

○재무과장 홍경숙

그전에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일제.....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만 그때그때 처리를 했었고 일제조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기존에는 민원인이 폐가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한 이후에 폐가처리를 했던 건가요?

○재무과장 홍경숙

이게 그런 폐가가 아니고 기존에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효능은 없는데

주택으로 대장상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으로 되다 보니까 주택청약이라든지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그걸 단순히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건물로 보면은 아까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거기 보시면 1940년부터 50년까지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김아진 의원

이 시기에 지어졌던 건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재무과장 홍경숙

예.

○김아진 의원

최근의 것일 수도 있는데요. 문화진흥과나 이런 데서 보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기에겐 분명히 폐가인데 그것도 다 보상을 하고서 철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폐가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폐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홍경숙

예.

○김아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오전에 자치과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요. 고향기부세 관련해서 다른 지역 동향들 보니까 어쨌거나 세외수입을 잡는 거기 때문에 재산부서에서 주무부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아까 자치과에 주문드린 것처럼 다른 동향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기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까지가 안 됐다고 하면 향후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추진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홍경숙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세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하면 세외 쪽으로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데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하면 후원금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관련 정책동향이나 흐름들을 파악하셔야 그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적극 관심 가지고, 그게 결국에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홍경숙

예.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나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황인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황인신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아진 의원**

(거 수)

○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208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부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결과가 사실은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지는 않았나 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접근성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성 이런 부분 지표가 있었는데 그 지표기준이 현재 시점에서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신청사 건립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 용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결과가 사실은 조금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고 또 주민들 설문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하신 주민 데이터폴도 너무 적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1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 **김아진 의원**

예, 50명 정도밖에 안 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인지 다시 한번 더 확장을 하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그때 주민설명조사는 범위를 더 넓혀서 진행을 했고요. 그때 언급한 그런 부분도 용역사에다가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받았던……

○ **김아진 의원**

그 이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 **김아진 의원**

그럼 그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설득이 될 만한 내용으로 주셔야 납득을 하지 않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길래, 그때 의원님들도 다 대부분이 보류를 하고 다시 점검해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후 결과 좀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구요.

○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보완된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아진 의원**

네, 그리고 희망의 창고 365 이거 어떡하죠?

○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아진 의원**

제가 중간보고 용역결과 보고회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혹시 기존에 자료 다 확인해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일부만 봤습니다.

○ **김아진 의원**

초기부터 해서 자료를 쭉 보시고 그때 보고회 때 나왔던 내용들도 언급했던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다?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포기를 했던 문체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 사업이 가장 가까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업……

○ **김아진 의원**

그런데 못하게 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그거는 23년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4년도에.

○ **김아진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계속 이 부분으로 끌고 가서 23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때 추진하시

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일단은 문체부에서 페널티적용 방침을 세웠는데 담당자가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23년 이전이라도 문화재청이라든가 관련 사업을 계속 찾아봐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현장방문 갔을 때는 폐산업시설로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어서 문화재등록을 해서 문화재청사업을 신청을 하겠다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아진 의원

그 등록은 어렵게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아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 1,000만 원을 지금 준비로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도에 학술연구용역비지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공모를 해서 부족한 용역비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2,000만 원으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아진 의원

문화재등록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그걸 본예산에 용역비 2,000만 원을 못세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김아진 의원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세우고 1,000만 원을 확보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아진 의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해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시작을 하겠다 하셨고 그 당시에 했었으면 그나마 활성화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좀 유행성인 면이 있어서 이미 3년이 지난 지금 또 2

3년 지나서 하면 퇴행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해마다 운영비 얼마큼 들어가는지 들어보셨어요, 만약 이 사업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합천에 있는 대장경 테마파크……

○김아진 의원

거긴 너무 작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거기를 갔다 왔고요.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아진 의원

중간보고회 때 대충 얘기 했었어요. 해마다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운영비가.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그거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제경비가 포함되는 걸로.

○김아진 의원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이 시설을 하면 프로그램을 한 3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3년에서 5년 정도.

○김아진 의원

최소한 3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15억 정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시설들이 다 하이엔드 뭐 그 비디오라든지 오디오라든지 그 시설이 최상급이기 때문에 길어야 5년에서 7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5년, 7년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시 한번을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아예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실 뭐 이렇게 계획수립하고 이런 안을 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이 자체를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될지 서천문화관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대로 계속 가지 말고 새로운 방법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지금 한산 남문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완공년도가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남문복원은 금년까지고요. 그 이후에 계속 추가 확보로 해서 한산 전통시장 아치형간판 아래까지 성벽을 계속 복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이게 공사가 시작돼서 완공단계에 오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 우리 모시타운과 남문공연장 간에 연결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 건가 가장 숙제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지금 우리 모시관도 활성화도 잘 되지도 않는데다 남문 하나 달랑 세워놓으면 보기는 좋으려나 몰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한산모시관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데크를 까느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완공이 된 후에 다른 시설을 추가를 하려다 보니까 매력이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미를 일이 아니고 지금 정도가 되면 앞으로 이와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김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의 창고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하면 죄송하지만 1,000만 원 그거 뭐 하러 받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기획실에 폴사업비라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빛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몰입형 미디어센터 조성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김아진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일부분 동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좀 용역을 빨리 줘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건물이 자꾸 노후화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관리 좀 하십시오 했더니 겨우 울타리 하나 쳐놓고 말았어요. 문짝은 그냥 덜렁덜렁하고. 그게 뭘 의미가 있어요?

애초에 그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도 없고 이왕에 매입을 했으면 우리가 사업은 하지는 못할망정 근대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보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형태에 관리해야 돼요. 울타리 치는 분들이 오히려 더 훼손시켰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죄송하지만 매입을 했으면 그 사업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때까지 그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건축물을 100% 보전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전이 돼야 되는데 자꾸 훼손이 되고 있어요. 울타리 친다고 훼손하고 그 앞에 건물 짓는다고 훼손하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거라고.

그렇게 놔두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주민들이 비난을 해요, 비난. 관리 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의 문제잖아요, 성의 문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그리고 한산모시관 내에 공예마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근래 공예마을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현재 두 군데가 비어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신성리 갈대밭에서 행사를 할 때 공예마을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서 협조를 요청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문 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경제 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주지를 시켜봤습니다.

○김경제 의원

군에서 운영하고 일부 우리가 넉넉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비용도 주고 시설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성리 갈대밭에서 행사를 하

니까 문을 열고 좀 동참을 해 주십시오하고 우리 군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게 뭐냐면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과장님, 그거 문 다 닫아버리면 편하잖아요, 차라리. 주변 가서 보셨어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주변을 보면?

자, 어떤 분 한 분이 문을 열어놨는데 “죄송하지만 차라리 문 닫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협조가 안 되니까. 우리 관이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나마 커피숍 하나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곳을 많이 산책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커피 마실 수 있겠어요? 최소한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이 일정 부분은 개입을 좀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물론 그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문제점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그 자리 하나씩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장소 하나 달라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규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해서, 아니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바뀌야죠. 안 된다고 막 그와 관계없는 이런 시설 저런 시설…… 거기 야외 의자 몇 개 해놨는데 죄송하지만 거기 모르고 앉았다가 세탁소에다 옷가서 맡겼어요.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지만 우리 모시타운이 모시타운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어

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모시축제도 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모시축제 할 때 며칠 반짝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모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검토할 때가 됐어요. 너무 우리가 전통모시도 지켜야 되지만 지키면서 과연 어떤 변화를 줘서 메리트를 줄 것인가 이젠 고민을 해야 돼요. 자주 좀 다녀오시고, 그나마 또 거기 몇 분들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 의원님들 그냥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가요. 자주 좀 현장을 보시고 전체를 어떻게 뭐 과장님이 다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뭐하지만 최소한 우리 문화예술과가 가장 큰 목적이 어떻게 보면 모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남문 복원시키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예술회관건립과 관련해서도 장소선택에 대한 문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서천읍내에 돌아다니는 말씀 들으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군에서 매입하기로 해서 비워놓은 집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

알고 계세요? 장항사람인 저도 알고 있어요.

“가게는 비웠으면 빨리 누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천군은 무슨 사업한다고 주변에 건물들을 다 매입해서 철거해 버려요. 그분들이 과연 계속 여기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시지 않고 자식 따라서 어디 따라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좋자고 하는 일이 인구를 지금 늘려도 시원찮은 판인데 줄이는 결과가 돼요. 그와 관련해

서 고민 좀 해주시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거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좀. 특히 우리 부군수님 새로 오셨고 기획실장님도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으면 이제는 어느 과의 문제가 문화예술과의 문제가 거기서만 다루니까 그 범위 이상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또 두드려 보고 두드려 보고 해서 그래도 잘못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려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소한 들으려고 한번 해 보세요.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냥 나 갈테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서천군의회가 서천군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 실질적으로 큰 브레이크를 걸어서 잘못되게 못되게 한 적 있어요? 좀 같이 상의하고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예.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이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의원

이현호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나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 점검원 운영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신서천화력 관련해서 현재 민간환경 감시기구 그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현호 의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아직 관련법규에는 정확하게 어떤 센터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타 시군이 라든가 관련해서 같이……

○이현호 의원

아직 사업이 윤곽이 잡힌 게 아니고 계속 어떤 논의 중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호 의원

계속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385쪽에 이현호 의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원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건설공사장이 먼지배출이 안 되도록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김아진 의원

그런데 점검이나 감시를 활발하게 해야 적극적으로 해야 시설들이 설치해도 운영이 되는데 신청할 때만 이런 시설들을 했다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몇 군데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건설사업장이.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분기별로 이렇게 다니시는 건지. 분기별로 다니시나 봐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사업장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사항 관련해서 이행여부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민간환경 점검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점검이라든지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 이때쯤에는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깔꿈미방을 398쪽에 자원순환 활성화시켜야 하는 건 분명하고 분리수거를 잘 배출해서 자원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깔꿈미방 설치를 위해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잘되는 데는 다행스럽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고 안 쓰고 있으니까 동네 분들이 “아깝다, 한번 와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전체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각 읍면에 연계를 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교육도 하고 다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설치 해놓은 거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전

년도 까지 한 37개소를 설치할 했고요. 읍면에는 별도로 더 일부 설치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관리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확인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402쪽에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그러면 지금 사료화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못쓰잖아요. 그래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김아진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돼지열병 때문에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사료로써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우리 시설물 자체가 사료화시설이거든요. 사료로써의 공급이 어렵다보니까 수요처가 없는 사항에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화 쪽으로, 기존에도 한번 현장방문 하셨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기존에 했었고요. 관련해서 음식물 사료화시설에서 퇴비화시설 쪽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돼지열병 때문에 사료화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퇴비화…… 공주던가요? 거기로 보내서 퇴비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논산.

○김아진 의원

예, 논산.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위탁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보내는 걸 지금 이동제한이 되어 있다고, 제가 잘못 해석을 했는지…… “가공된 사료를 돼지농장으로 이동제한……” 사료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료화시설을 퇴비화시설로 다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논산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한 15군데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4톤 정도 기존에 처리를 하다가 위탁업체에다가 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걸 전량…… 저희들이 퇴비화시설이 10톤 정도 증설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게 되면 서천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아서 퇴비화 시설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관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김아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아진 의원님이 깔꿈미방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 깔꿈미방을 설치할 했는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사항이 일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홍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깔꿈미방이 지금 각 읍면에서도 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설치하고 해요. 그런데 용기나 마대나 쓰레기봉투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말씀 못 들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 김경제 의원

오늘 깔꿈미방 설치한 데 가서 다 여쭙보세 요. 그게 깊이가 깊어서 쓰레기봉투를 장착해 서 뭐 넣으면 쓰레기봉투가 아래로 주저앉아 버려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그 밑에다가 뭘 넣었어요, 깔았어 요. 이게 뭐냐면 문제점이 있었으면 우리가 설 치할 때 그 용기를 좀 알게 설치하면 되는 거 예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 김경제 의원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고 리가 있는데도 장착이 되지 않으니깐 쉽게 얘 기해서 깔꿈미방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 월인이.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해 야 돼요.

그리고 뭐냐? 읍면에 설치를 하더라도 환경 보호과와 협의하지 않고는 설치를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은 규격에 같은 시설 로…… 시설도 들쭉날쭉. 이거 오늘 한번……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서 야할 문제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 다나 우리지역은 고령화가 심해서 어르신들이 허리가 많이 굽어서 높이가 높으면 제한이 돼 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불편하니까 어때요? 많이 훼손 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 김경제 의원

그거 누가 훼손시켜요? 쓰는 분들이 불편하 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를 알 았으면 개선책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 도록 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도 그와 유사하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오늘 이후 에라도 꼭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특히 관리가 되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가보면 관리원들이 밑에다 다 뭘 깔았어요.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 김경제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마서면 일대에서 화학물질차량이 전복됐던 건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 김경제 의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대책 위원회도 구성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 김경제 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깊이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기존에 보험사에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보험 사에서 아직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 김경제 의원

우리 서천군민이 다 보고 있는데 제가 한말 씬 드릴게요. “보험 회사는 나쁜 놈, 서천군은 더 나쁜 놈”이래요.

아니, 화학물질이 전복이 돼서 농민들이 피 해를 봤다고 부르짖으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당 연히 그에 대한 성분조사를 하고 우리 주민 편에서 대변인을 해야 돼요.

몇 분인가는 아세요?

과장님 업무 숙지 못하셨다고 이해를 하겠 습니다. 그것 좀…… 이게 무슨 과가 관련이 있냐면 농림과, 환경보호과. 지난번에 농림과 장님한테 내가 심하게 한 부분도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 아니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합니까? 깔꿈미방 몇 개 설치하고 뭘 필요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많으니깐 잘 못 버리 면 치우면 되고. 이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 어요? 이것을 주무과장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 고 대처를 못하고 있고.

저도 답답해서 몇 번 여쭙보고 했는데 저보 고도 뭐라고 하나면 똑같은 사람이래요.

사업을 한두 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부서는. 환경보호과가 왜 존재를 합니까? 깔끔미방 설치하려고 환경보호과가 있고 쓰레기 치우려고 환경보호과가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주민의 환경을 지켜주고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죠? 외부로 알려질까봐. 그분들 쌀 납품 제대로 못했죠? 그것도 모르시겠구만.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변호사 사서 대변은 못해줄망정 우리가 자료나 근거는 마련해서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있는 것이지 주민 없는 환경보호과 있어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놓쳤을 때 불과 20여 명 남짓 농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요. 농림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 농림과 보고할 때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답이 되는지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농림과는 무슨 일을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답변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실·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나학균, 강신두, 김경제, 조동준, 노성철, 이현호, 김아진 (7명)

○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군수	노박래
부군수	김성관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재무과장	홍경숙
관광축제과장	이온숙
문화진흥과장	황인신
안전총괄과장	김명원
교육체육과장	이진희
농정과장	박명수
산림축산과장	신동순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건설과장	전용각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보건소장	이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순중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익렬

○ 의회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회사무과장	이대철
수석전문위원	김맹선